

현대의상에 표현된 OP ART의 조형성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임영자

창원전문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이현숙

目 次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Op Art의 탄생과 발전

2. Op Art의 표현방법

III. 현대의상에 표현된 Op Art의 응용 고찰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복식은 인간의 내재적, 추상적 예술정신의 요소가 물질화 형식화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상적인 매개체이고, 대중의 가치관을 반영시킬 수 있는 무언의 언어로서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 짓게 하는 강력한 사회적 도구이다.¹⁾ 또한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미적 감각의 표현으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응수단이며 한 시대 예술의 구성인자가 표출되고 지각되며 경험되는 매체의 하나이기도 하다.²⁾

복식은 특수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회화와 조각 등 순수미술과는 달리 옷을 입는다는 물리적이며 기능적인 측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³⁾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여러 예술분야와 상호관련하여 인간의 내적인 미의식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⁴⁾

Horn은 드레스의 패션은 지난 150여년 동안 정

신적으로 복고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추상주의와 같은 그 시대의 미술을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POP ART나 OP ART의 경향도 그 시기에 곧바로 패션에 나타난다고 하였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순수 예술양식과 복식과의 상호관련 및 영향에 대한 연구와 예술적인 시각에서 현대복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예술양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홍숙의 조형분야와 복식에 나타난 예술양식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회화, 건축, 조각, 공예 등의 조형분야에 나타난 예술양식과 복식에 나타난 예술양식의 유사성을 제시함으로써 복식도 조형예술의 한 장르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60년대의 미술사조를 대표할 수 있는 OP ART의 양식과 특성이 현대 의상에 어떠한 표현방법으로 구현되고있는지를 인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논문에서 다룬 순수예술과

복식과의 횡적이 연구가 아닌 종적인 연구로써 복식의 예술성을 재조명하고, 예술성 있는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의생활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에 짧은 기간 유행하였던 OP ART의 예술양식을 중심으로 발표된 작가의 작품과 1988년 이후부터 최근의 복식에 표현되어 시각현상을 초래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1960년대의 OP ART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 관계서적 및 사진을 이용하였고, 현대복식은 198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간된 COLLEZIONI, COLLECTIONS, GAP 등에 발표된 작품과 Optical의 시각적 개념을 인체와 optical 패턴의 복합적 유기성을 조화시켜 입체적인 시각적 효과로 표현된 현대 패션을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OP ART의 탄생과 발전

인간의 눈을 통하여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작품은 시각예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현상과 눈을 통한 지각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 현상과 지각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OP ART운동은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걸쳐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는 추상표현주의, 타시즘(Tachisme) 그리고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 등 앵포르멜(Informel)예술이 지배적이었으나 몇몇 젊은 화가들은 정밀한 표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Action Painting이라는 용어는 1952년 미국평론가 해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가 미국의 Action Painter's 라는 제목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⁷⁾ 제2차 세계대전 이후 New York을 중심으로 일어난 추상적 표현주의 운동이다. 서구 합리주의를 뿌리치고 부정형적인 공간의 형성을 화면에 정착시켰으며, 대상의 재현, 또는 재구성적인 기하학적 추상과 대비된 행

위의 장으로 새로운 의미를 띄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중심작가는 Pollock이며, 그의 오토마티즘(Automatism)기법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무의식의 행위인 자동행위로서, 정신의 자동기술을 강조했던 Surrealism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자동행위의 미술로부터 후기 색채 추상이라고 불리는 차가운 비개성적 추상으로 기울어 갔고, 그 경향을 선택한 Riley와 Vasarely등의 OP ART의 작품들은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적인 깊이와 감각을 착시적 효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상을 표현하였다.⁸⁾ 그리하여 바사렐리(Vasarely)⁹⁾에 의하여 실현된 OP ART는 간결하고 정밀한 표현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였다. OP ART는 그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욕구 - 기성세대에 대한 욕구불만 내지는 반항 - 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켰다. 즉, 감상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작품을 구성하는 예술적 창조 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1964년 파리의 “뉴 텐덴시” 전시회의 카탈로그에서 “우리의 목적은 당신을 우리의 동반자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예술은 당신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카알 게르스트너(Karl Gerstner)는 말했다.

그리고 “시각예술을 추구하는 그룹”은 그들의 선언문 「신비의 충족」에서 “개화된 눈, 민감한 눈, 지적인 눈, 미적인 눈, 예술을 사랑하는 눈, 인간적인 눈은 우리들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배제한 창조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¹⁰⁾

OP은 Optical을 줄여서 만든 용어로 1964년에 타임지의 기사에 의해서 기사화 되었고, 1965년 2월 뉴욕의 현대미술박물관에서는 “Responsive Eye Exhibition”이라는 OP ART를 위주한 최초의 국제전이 열렸다.¹¹⁾ OP ART의 중요한 특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즉 일상적인 시각이나 다른 형식의 예술작품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심리적인 과정이 눈을 통하여 뇌에 전달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는 점이다.¹²⁾ 또한

OP ART는 망막의 자극이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며, 그 의도는 관람자의 생리적인 시각반응을 유도한다.¹³⁾

형태와 색을 독립된 조형언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칸딘스키(Kandinsky)에서 부터이며, Kandinsky는 점, 선, 면, 색채 등을 중요한 표현요소로 사용하여 인간감정을 표현하는 심리작용에 사용하였다.

바우하우스(Bauhaus)에서는 점, 선, 면 또한 색채가 지닌 근원적 의미와 원칙등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조형언어의 완전한 습득이 조형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었다. 또한 미술과 과학 기술의 협동을 시도함으로써 현대기계문명의 전적인 수용과 예술과 과학의 합치를 이룩하려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Bauhaus정신은 20세기의 새로운 미를 창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형실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셉 알버스(Joseph Albers)¹⁴⁾의 기하학적 추상은 이미 심리학적 형태와 색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최초로 OP ART유형을 시도하고 있었다.¹⁵⁾

시각적 효과에 대한 뒤샹(Duchamp)의 관심은 아주 진지하였으며 또한 의도적이기도 하였다. 그는 광대처럼 익살을 부렸지만 거기에는 시각현상에 대한 다스간의 유희적인 탐색이 포함된 것이었으며 그러한 점은 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 Bauhaus의 Joseph Albers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뒤샹(Duchamp)¹⁶⁾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와 파울 클레(Paul Klee)¹⁷⁾의 「폭풍의 언덕」은 OP ART에 큰 영향을 주었다.

눈은 심리적이며 생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¹⁸⁾ 광학 즉 시각의 물리학적, 심리학적 과정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¹⁹⁾ optical회화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패턴 그리고 작가의 의도적이며 기술적인 배려에 의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 유도현상을 일으키며, 이것은 감상의 단계 이전의 시각현상으로서 즉각 나타나는 수용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지각의 반사작용은 일반적인 반사작용보다 더

욱 강하게 작용하며, 이때 지식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각작용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억제하지 않을 때의 느낌과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OP ART는 근본적으로, 강력하고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예술의 기본원리를 찾아내려 하고 있다. 이것은 총체적인 추상에 의거한 본질의 예술로, 기본적인 시각원리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추상에 이르게 된다.

OP ART가 비평가나 해설자 없이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는 사람의 생리적 현상인 지각에서 정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²⁰⁾

2. OP ART의 표현방법

80년대에 들어서면서 Fashion은 Art의 경계를 없애고 침투함으로써 Modern Art와 Modern Fashion은 함께 <작품의 상호 참조성>²¹⁾이 고양되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표현을 요구하는 탐험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²²⁾ 그러므로 optical의 표현으로 자기 표현 및 행동과 양식을 창출하면서 자기 참가적인 고유한 예술권리를 누리려고 한다.²³⁾

OP ART는 예정된 POP ART의 계승자이며, 미래파나 구성주의라 하는 비옥한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위하여 현대와 적대하는 경향이 있었다.²⁴⁾

OP ART는 단순성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적이며 즉각적인 효과를 위하여 복합적인 서술을 피하고 하나의 요소, 또는 여러 요소들의 질서 있고 규칙적인 흐름을²⁵⁾ 가능한 간략하고 일률적인 구성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선의 나열방식, 선의 반복된 중첩, 기하학적인 형태반복과 겹쳐진 무늬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인 Moire패턴, 크기의 점, 방향의 통일을 사용하여 공간을 느끼게 하는 선원근법, 이밖에도 optical 화가들은 왜곡, 역전되는 영상, 전진 등의 효과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지된 환영적(幻影的)인 움직임

을 나타낸다.²⁶⁾

그러나 의상에서 optical의 표현은 공간성과 조형성을 도입하여 OP ART개념의 확장을 시도하여 실제의 움직임 연출하였다. 고대로부터 인체는 조형대상이 되어 왔고, 예술의 역사는 회화보다는 조각이 먼저 시작되었다.²⁷⁾ 즉 인체의 프로포션(Proportion)체계 위에 새로이 창조된 프로포션과 겹쳐져 공간을 형성하고 이 중간공간의 양과 형태에 의해 2차원에서의 평면적 표현방법이 제2피부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며 인체에 작용하는 심리적 수정효과를 창출해 내려고 한다.²⁸⁾

그러므로 인체의 움직임은 자세나 훑날리는 듯한 옷주름과 치마자락등의 움직임은 주의력을 끄는 강한 시지각의 대상이 된다.

움직임이란 가만히 있지 않는 생명력으로 의상에 생명력과 역동감을 부여하여 그 움직임과 형식이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된다.²⁹⁾ 움직임은 지각적인 움직임과 실제의 움직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지각적인 움직임은 시지각에서는 긴장의 요소이며, 긴장은 눈의 근육이 긴장하여 지각표상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이동(Locomotion)이 나타난다.³⁰⁾

그러므로 의상의 움직임은 방향, 움직임에 따른 속도의 표출, 의상이 인체에 입혀 질 것이라는 가시적인 운동력인 환영적 움직임을 단혀진 optical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입혀진 의상의 움직임은 열려진 optical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의상의 움직임은 상호의 관련성, 움직임에 의한 무한한 변화의 내적이 가능성(의식, 감정, 욕망, 의도)과 외적인 가능성, 비예측성으로 OP ART의 영역확장을 내포하고 있다.³¹⁾

Ⅲ. 현대의상에 표현된 OP ART의 응용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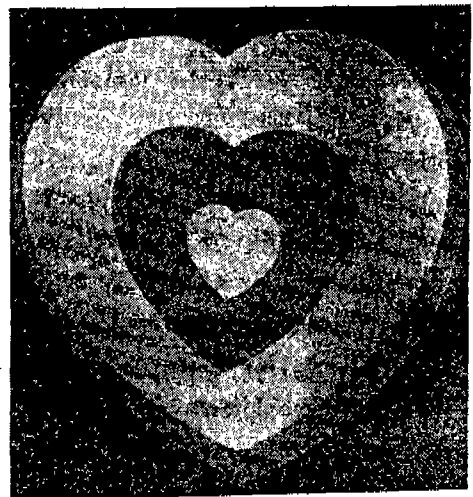
모든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의상을 디자인 할 때는 디자인 영감이 필요하며, 디자인 영감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근원이 된

다.

그러므로, OP ART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제공하여 주었다. OP ART의 기하학적인 느낌은 패션 디자이너로 하여금 새로운 기하학적인 접근을 하도록 이끌었으며, 복식의 구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일반적으로 패턴이 되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OP ART에 영향받은 현대 의상에 초점을 두어 OP ART의 양상과 특성이 나타난 작품 즉, optical의 표현(움직임이 강약과 디자인 요소와 원리에 의하여)을 회화작품과 비교함으로써 현대의상의 형태와 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복식이라는 외적인 표현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알아봄으로서 예술범주의 작품을 횡적인 면은 물론 종적인 면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은 OP ART로 간주할 수 있는 뒤상(Duchamp)의 작품중 가장 유명한 1936년에 제작된 「약동하는 심장」으로 4개의 심장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교차되어 있어 긴 시간 바라보면 색채의 대비작용에 의하여 속도감이 더해지면서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³²⁾



(그림 1) Marcel Duchamp, 약동하는 심장, 1936

(그림 2)는 HIROMICHI NAKANO의 작품으로 가슴부위에 4개의 심장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외곽선에 가까울수록 왜곡된 형태와 밝은 색상을 띄고 있으므로, 속도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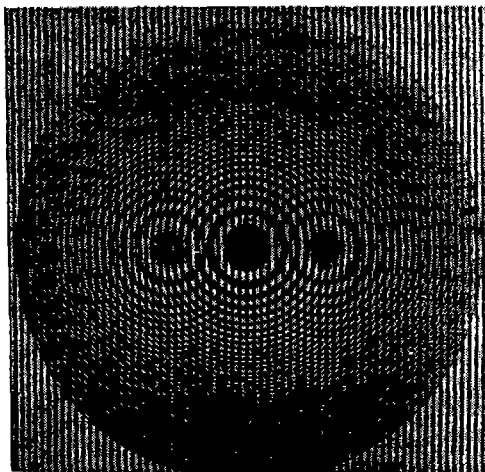
(그림 2) Hiromichi Nakano, GAP, 1990~1991 A/ W

될 때 나타나며 거기에 묘사된 구조를 변화시킨다.³³⁾

(그림 4)는 SARLI의 작품으로 허리에서 턱을 향하여 둥근 곡선을 이루면서 힙 뒤의 허벅지 부위에서 만나는 선을 이룬 조형성이 높은 의상으로 얇고 뽀뽀한 직물이 겹쳐짐으로서 아른거리며 신비감을 더해주는 프레넬-링-모아레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4) Sarli, COLLEZION, N.4 1987~1988



(그림 3) Fresnel-Ring-Moiré

(그림 3)은 SOTO의 모아레효과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두개의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시할 수 있는 구조나 선의 구성이 약간 어긋나거나 겹쳐져 있을 때, 또는 대칭적인 구조가 겹쳐져 있을 때, 그리고 단일 구성요소가 규칙적인 구조 위에 표현



(그림 5) Soto, 소용돌이,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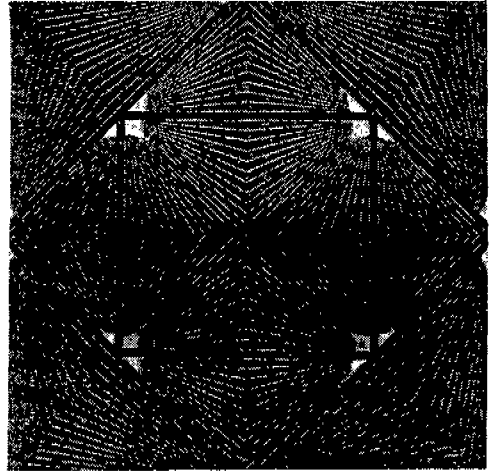
(그림 5)는 SOTO의 작품「소용돌이」로 형태의 순수한 움직임과 질로부터의 탈피는 아주 간단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변형하기를 원하였고, 결국 모아레에 의한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심부로부터 빠져나오려는 몸짓 같은 떨림을 느낄 수 있다.

(그림 6)은 JUNKO KOSHINO의 작품으로 얇고 비치는 직물에 나선형의 곡선이 중앙부에서 외곽선으로 퍼져나가는 문양의 형태로 의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무한히 뻗어나가는 광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Junko Koshino, GNP, 1989 S/ S

(그림 7)은 RICHARD ANUSZKIEWICZ의 작품으로 사각형안에 다시 사각형으로 된 구성의 기본형태와 각기 다른 명암이 나타내는 효과는 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선은 그 자체가 접은 부채를 펼쳐 놓은 것 같은 모양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접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시각적인 어른거림 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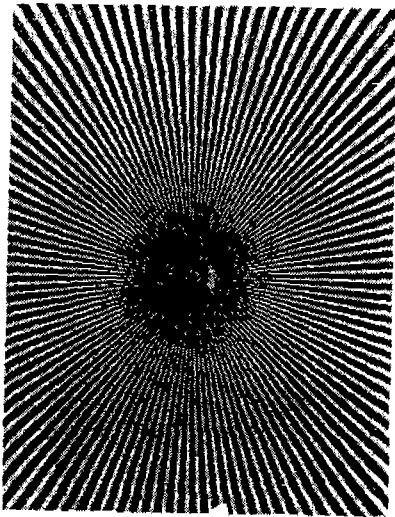
(그림 7) Richard Anuszkiewicz, 강력한 분할, 1964

(그림 8)은 GAETANO NAVARRA의 작품으로 앞중심선을 향하여 두개의 사선이 만남으로서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게 하고, 옆선에 덧칠을 붙임으로서 사선의 길이를 짧게 하여 시선의 흐름을 더욱 증진시켜 경쾌감을 준다.



(그림 8) Gaetano Navarra, COLLEZIONI, N26 1992 S/ S

(그림 9)는 McKay의 작품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잘 표현한 것이다. 우리 눈의 시선은 그림의 중심부에 모여지며, 그로 인하여 선의 구별이 어렵고, 선이 더욱 좁아지고 밀접되면서 마침내 하나의 빛의 홍수가운데 폭발해 버리고 만다. 그와 함께 광선 형태가 팽창된 중심부로부터 이러한 충격 파장이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어두운 충격 파장위에 스펙트럼의 부드러운 파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잠시후 우리의 눈은 강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를테면 눈의 활동에 의한 잔상 작용으로 부터 받은 새로운 표현에 대한 인상은 감상자를 흥분에 싸이게 하기에 충분하다.³⁵⁾



(그림 9) McKay,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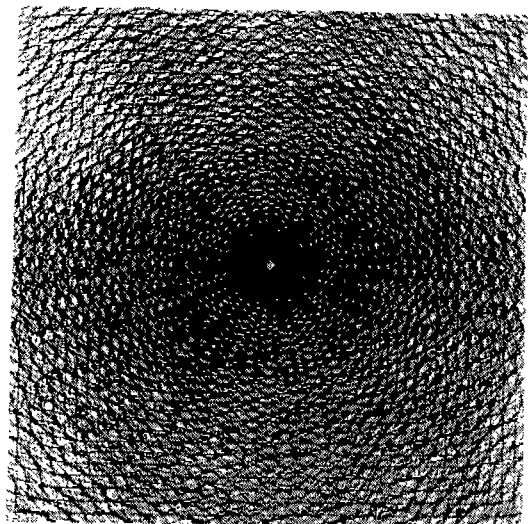
(그림 10)은 YUKIKO HANAI의 작품으로 포인트가 되는 묶음을 허리선상에 두고 그 점에서부터 아코디언 프리츠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함으로서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시선을 모으는 역할도 하며, 스커트의 햄 라인을 언바런스하게 디자인하므로써 퍼짐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10) Yukiko Hanai, GNP, 1990~1991 A/ W

(그림 11)은 LUDWIG WILDING의 작품으로 목판위에 선으로 된 소묘법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그림 12)는 NOVESPAZIO의 작품으로 반투명한 직물의 블라우스의 가슴 위를 중심으로 하여 구슬로 사면의 면적을 넓혀가면서 장식하므로 시선을 집중시켰고, 같은 구슬을 엮어서 술을 두름으로써 면적을 더 확대시키는 느낌을 준다.



(그림 11) Ludwig Wilding, 선으로된 소묘, 1962



(그림 12) Novespazio, COLLECTIONS, 1991 S/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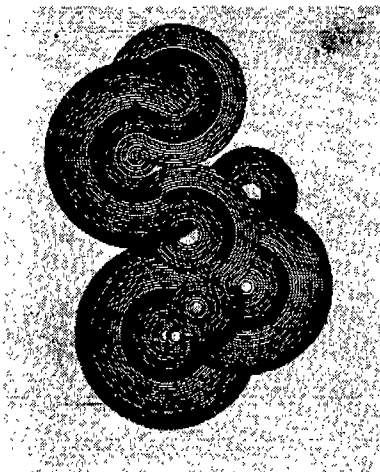


(그림 14) Gianfranco Ferre, GAP, 1989 S.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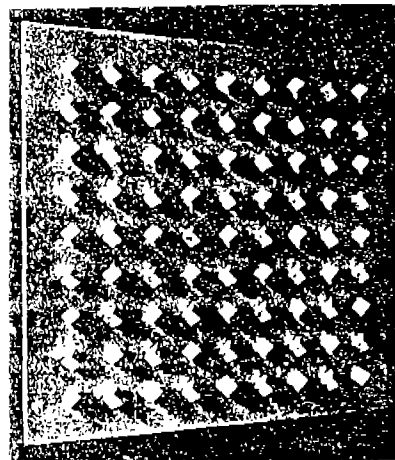
(그림 13)을 Unit Pattern화한 것으로 JO ONO 와 YASABURO KUWAYAMA의 작품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크게, 또는 작게 선을 이루며 돌아감으로서 선의 움직임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그림 14)는 GIANFRANCO FERRE의 작품으로 복식의 기본 구성선과 무관하게 일정한 허기의 끈을 동심원을 만들면서 돌아가게 함으로서 형성되는 느낌은 건축적(構築的)인 형태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5)는 LUIS TOMNSELLO의 작품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감상하면 어떤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작은 주사위 형태의 구조물은 광선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면서 나타난다. 즉 감상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이 구조물의 개별성은 달라진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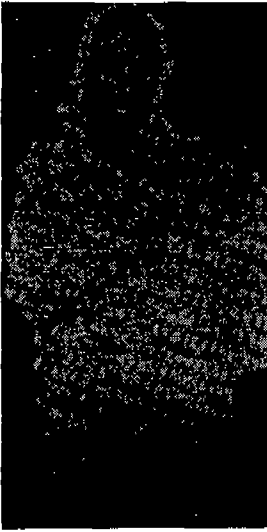


(그림 13) Jo one



(그림 15) Luis Tomnsello

(그림 16)은 MANUEL PINA의 작품으로 Knit를 소재로한 후드 달린 드레스에 방울을 달므로써 방울의 흔들림 및 Light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는 검은 점 무늬를 형성하는 느낌을 줌으로서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 의상의 느낌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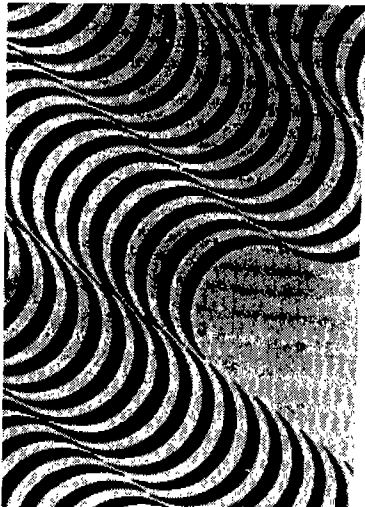
(그림 16) Manuel Pina, COLLEZIONI, 1989~1990 A/ W

(그림 18)은 NINA RICCI의 작품으로 Neck Line에 여러겹의 다양한 색의 Ruffle을 부착하므로써 움직임의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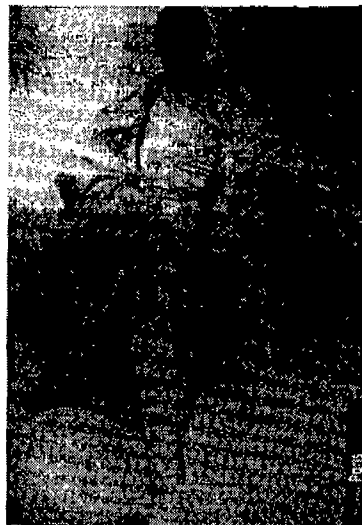
(그림 18) Nina Ricce, COLLEZIONI, N. 6 1988 S/ S

(그림 19)는 MAURIZIO GALANTE의 작품으로 얇고 비치는 직물로 여러 겹의 넓은 코트의 길이를 동심원을 이루면서 구성함으로써 유동의미를 한층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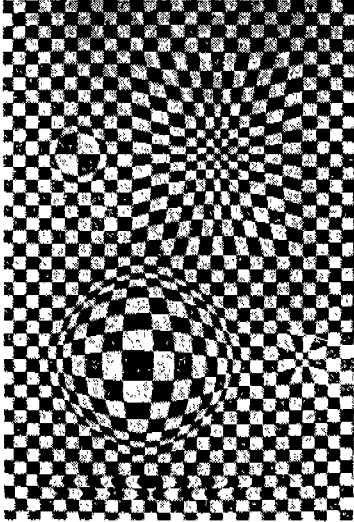
(그림 17) Franco Grignani

(그림 17)은 FRANCO GRIGNANI의 작품으로 울동, 활동, 적극, 쾌활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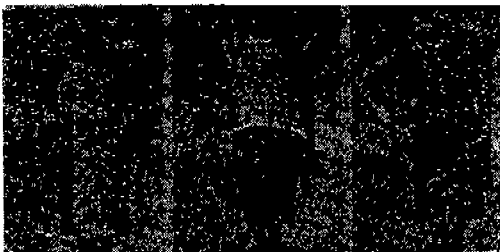
(그림 19) Maurizio Galante, COLLEZIONI, N.26 1992 S/ S

(그림 20)은 VICTOR VASARELY의 작품으로 특수한 형태의 법칙에 의하여 다양한 지각작용을 유발시킴으로서, 망막위에 거꾸로 세워진 피사체의 충격이 신경을 통하여 뇌에 전달되고, 그로 인하여 동적인 지각작용이 형성된다. 그 결과 강렬한 축소와 확대, 몰입과 돌출의 느낌을 느끼게 된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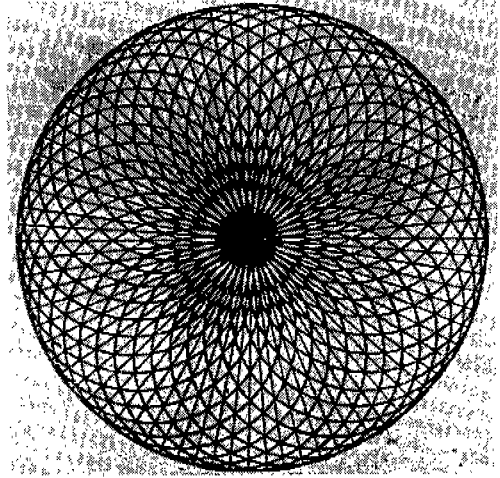
(그림 20) Victor Vasarely, 1956

(그림 21)은 김은하의 작품으로 OP ART를 분석에 과장되게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인체의 곡선미를 과감하게 표현하여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그림 21) 김은하, BODY ILLUSIONI, 1991

(그림 22)는 GABRIEL REUSE의 작품으로 마름모 형태를 동글게 연결시켜 부피감있는 움직임 느낄 수 있다.



(그림 22) Gabriel Reuse



(그림 23) Sarli, COLLEZIONI, N.6 1988 S/ S

(그림 23)은 SARLL의 작품으로 벌집형태의 입체감을 구성함으로써 울동성을 느낄 수 있다.

IV. 결 론

시각적 효과의 개념으로 출발한 OP ART는 아

롭다움을 추구하는 의상에 반영되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년도의 OP ART 작품을 88년도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의상작품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장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응용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 의상에서의 OP ART 표현은 인체의 움직임과 조화로운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며 optical 문양의 제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감각으로 시각적 현상을 의상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확대와 역동성을 나타내었다.

둘, optical 회화에서는 이차원적인 평면적 표현 방법으로 한정된 공간에 유동성과 울동성을 나타냈으나 의상이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에는 삼차원적인 입체적 표현방법으로 그 유동성과 울동성이 더욱 확대되어 optical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대담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으며, 움직임의 강약이나 디자인의 요소나 원리에 의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비예측성으로 optical 자체의 표현보다는 optical의 열려진 표현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실루엣과 구성능력을 창출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 optical 문양을 의상에 응용함으로써 특별한 디자인 효과와 신체의 결합을 가릴 수 있고, 인체의 곡선미를 과장하여 원하는 입체감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상과 OP ART는 예술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 장르는 서로 다르지만 추구하였던 바가 일맥상통하며, optical의 가능성은 무한하므로 의상과 시대감각에 맞는 예술을 결합시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차원 높은 복식 조형예술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인자, 복식사회 심리학, 수학사, 1984, pp. 9~14.
- 2) 주명희, 야수주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원 박사학위 논문, 1990,

p.9.

- 3) 장문호, 복식미학, 장학사 참조.
- 4) 주명희, 전개서, p.10.
- 5) Marilyn J.Horn,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p.15.
- 6)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에술 양식을 통해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15.
- 7) 정홍숙, Arshile Gorky와 Jackson Pollock의 Painting이 현대의상 직물에 미친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16권 3호, 1992. 8, p.200.
- 8) 진성모, Fashion Design의 조형적 특성과 그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1, pp.23~25.
- 9) Vasarely, Victor는 1908년 헝거리의 페크스에서 출생. 부다페스트 미술학교의 알렉산더 볼트니크 밑에서 미술 수업. 1930년 파리로 이주. 상업화가로 일하면서 판화를 제작하다가 1944년 그림으로 전환하여 드니즈 르네 화랑에서 장기적으로 전시회를 가짐. 1947년부터 구성적인 기하학적 미술에만 전념하여, 값싸고 복제할 수 있는 미술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조립할 수 있는 채색된 형태들을 규격화함. 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많은 국제적인 상을 수상. 1970년 남프랑스의 고르드에 바사렐리 교육미술관을 설립했다.
- 10) 시릴 바레트, 정미회역, 미진사, 1987, pp. 31~32.
- 11) 정혜주, Op Art와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p.4~5.
- 12) 시릴 바레트, 정미회역, Op. cit, p.7.
- 13) 노버트 린튼, 윤난지역,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1989, p.330.
- 14) Albers, Joseph은 1888년 독일의 보트룸에서 태어나 1976년 뉴 헤이븐에서 사망. 학교교사였고, 베를린과 뮌헨 그리고 1920~23년사이에는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에서 미술공부. 1933년 까지 바우 하우스에서 가르쳤다.

15) 심용택, Op Art 및 Op Art 작가들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참조.

16) Duchamp, Marcel은 1887년 프랑스 루앙근교 이 블랑빌에서 태어나 1968년 뇌일리에서 사망. 사서훈련과 화가교육을 받음. 1911년 쉐시옹 도르 그룹의 큐비스트들과 교제했는데, 이들은 1912년 그의 <계단을 내려 오는 나부>를 거절함. 1914년 최초의 레디메이드를 제작했다.

17) Klee, Paul은 1879년 스위스 베른 근교 뮌헨 부호제에서 태어나 1940년 로카르노의 무랄토에서 사망. 1898~1901년 뮌헨미술학교에서 공부. 1914년 예나대학교에서 '현대미술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 1925년 바우하우스에서 교육적 스케치북을 간행했다.

18) 박은주역, 색채 조형의 기초, 미진사, 1989, 56.

19) H. W. Janson, History of Art, 김윤수역역, 서울 금성출판사, 1987, pp.643~644.

20) 심용택, 전계서 참조.

21) 작품의 상호참조성이란 모든 문학작품 혹은 예술작품은 은연중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다양한 작품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암시하여 논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22) John A Waker, 정진국역,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열화당, 1987, p.96.

23) Ibid, p.13.

24) Art Now, 1985, 한국미술연감사, p. 301.

25) E.B 펠트만, 김춘일역, 미술의 구조적 이해, 열화당, 1982, p.97.

26) 윤난지, 움직이는 미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pp.2~4.

27) 리이트, 허버트, 이회숙역,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1984, 참조

28) 공경희, 20세기 미술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p.94~100.

29) 이은영, 현대복식에 있어서의 예술성의 개념,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43.

30)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역,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 1987, pp.531~534.

31) 심용택, 전계서 참조.

32) 시실 바레트, 정미희역, 전계서, p.40.

33) Ibid, pp.73~74.

34) Ibid, p.137.

35) Ibid, p.10.

36) Ibid, pp.92~94.

37) Ibid, p.8.

ABSTRACT

The Modeling Nature of Op ART Expressed In Contempotary Dresses

Hyun-Sook Yi.

*Young-Ja Lim

Dept. of Fashion Design,

Chang-Won Junior College

*Dept. of Home Economics,

King Sejong University

Unlike pure art such as painting and sculpture, dressmaking, a field of special plastic art, is characterized by its physical and functional nature. Having an inseparable relation with form, it is a field of art expressing the human inner sense of beauty in correlation with other various fields of art.

In this respect, I think it should be necessary for us to study the forms of art from the past in order to study the correlations and mutual influences between forms of pure art and dressmaking and to understand modern dressmaking from the standpoint of art.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how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OP ART, which represents the trends of the 1960's, is embodied in modern dres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 expression of OP ART in dresses have visual effects harmonizing with bodily movements and, also, expanded the range and dynamics of expression which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of visual phenomena in a fresh new sense by not limiting itself to the suggestion of patterns of OP ART.

Second, OP ART paintings expressed the mobility and rhythmicity of a body in a limited space in a two-dimensional plane way of expression. When a dress is worn, however, it expands such mobility and rhythmicity in a cubic, three-dimensional way, maximizing the effects of, and boldly expressing, OP ART, it can also create a new silhouette and ability of

formation by seeking an open expression of OP ART rather than an expression of OP ART itself, due to the infinite possibility and unpredictability by the dynamics of movements and the elements principle of designs.

Third, by applying the patterns of OP ART to dresses, we can obtain special visual effects of design, cover up the body's weak points, and create a desired three-dimensional sense by highlighting the beauty of the body's curved lines.

Although modern dresses and OP ART are different genres of art, both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eir pursuits. Since there is an infinite possibility in OP ART, there should be continuous attempts to combine dresses and art satisfying the sense of the times, which will lead dressmaking to a higher-dimensional dressmaking plastic art.